〈기아차 모하비〉

〈현대차 그랜저〉

〈쌍용차 액티언〉

〈GM대우 마티즈〉

4월 차량 판촉 대전…愛馬 바꿔 보세요

봄 성수기 차값 할인, 취득·등록세 지원 행사

에어컨 무상 장착·할인·무한혜택 페스티벌도

새 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황금시즌'이 돌아왔다. 자동차 업계가 4월을 전후로 차값 할인과 취득·등록세 지원 등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유류비지원과 무이자 할부는 물론, 다양한 사은품을 내걸고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차와 수입차 업체들은 봄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판촉전략을 앞세워 '4월 대전'을 벌이고 있다.

◇기아차, '로체' 10~15% 할인…부품 보증기간 연장=기아차는 미국의 유력지 '카북'에 '로체'가 3년 연속 최우수 추천차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올해 생산된 차량에 대해 차량가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지난해 생산된 차는 15%까지 할인된다.

이와 함께 '쎄라토'의 가격을 50만원 낮췄으며, '프라이드'(10만원), '모하비'(30만원), 카니발(20만원) 등의 할인혜택을 준다. '쏘렌토'·'스포티지'·'카렌스' 등은 50만원씩 깎아준다.

또 '카렌스'와 '카니발' 구입 고객 중 다자녀(20세 이하 3자녀) 가정인 경우 추가로 50만원을 할인해 준다.

기아차는 부품 보증기간도 대폭 늘렸다. '모닝', '프라이드', '스포티지', '쏘렌토', '카렌스', '카니발' 등은 보증기간을 기존 2년(4만km)에서 3년(6만km)으로 연장했다. '쎄라토', '로체', '오피러스', '모하비'는 3년(6만km)의 조건을 4년(8만km)으로 크게 늘렸다.

◇현대차, 차종별 10만~100만원 할인=현대차는 '쏘나타 트랜스폼'과 '아반떼'의 가격을 이달부터 10만원씩 할인해 주고 있다.

또 '에쿠스'의 차값을 100만원 낮춘 것을 비롯, '그랜저'(20만원), '베라크루즈'(30만원), '투싼'·'싼타페'(50만원) 등의 할인혜택을 준다. '그랜드 스타렉스'의 가격도 30만원 내렸다.

이밖에 장애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30만원을 할인해주며, 교사·교직원에게는 20만원을, 올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다자녀 고객에겐 10만~50만원을 깎아준다.

◇GM대우, '마티즈'·'라세티' 에어컨 무상 장착=GM대우는 '마티즈'와 '라세티' 구매 고객에게 51만~84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무상으로 장착해 준다. '젠트라 엑스', '젠트라', '토스카', '윈스톰' 구매 고객에게는 50만~90만원의 할인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마티즈'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이달 구매 고객 전원에게 에어컨과 후방주차센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10년 전 '마티즈'를 구입했거나 결혼, 출산, 면허취득, 사회 진출 10주년을 맞이한 고객들에게는 보험료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GM대우는 '토스카'와 '윈스톰'에 대해 구입한 지 3년 또는 4년 후에 중고차 가격을 최고 55%까지 보장해 할부금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쌍용차, '액티언' 등 유류비·하이패스 단말기 제공=쌍용차는 4월 '무한혜택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벌인다.

'렉스턴II 유로(EURO)'와 '뉴카이런', '액티언', '뉴로디우스' 구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200만원 유류비 지원 ▲저리 36개월 할부(5%) 및 100만원 유류비 지원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뉴카이런'과 '액티언' 구입 고객에겐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료로 지급된다.

◇르노삼성, 'SM5' 출시 10주년 기념 60만원 지원=르노삼성은 올해로 출시 10년째를 맞는 'SM5' 구매 고객에게 59만8천원을 지원해준다.

또 'SM7'과 'QM5' 구매 고객들에게는 저리 할부를 벌인다. 3~36개월로 할부 구매땐 5.5%, 37~72개월은 6.9%를 적용한다. 3~12개월의 할부땐 무이자 구매가 가능하다.

삼성카드 사용을 통한 선포인트는 'SM7'이 50만원, 'QM5'가 30만원이다. 'QM5' 구매 고객이 액세서리를 장착할 경우 액세서리 구매금액의 40%를 할인해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수입차도 4월 판촉행사 '빵빵'

BMW·폭스바겐코리아, 금융혜택 등 파격적 조건 내세워

수입차 업계도 성수기인 4월을 맞아 파격적 조건을 내걸고 판촉전에 뛰어들었다.

BMW코리아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인 '뉴528i' 출시를 기념해 '다이내믹 파워리스'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28i'를 구입하면 차량가격(6천750만원)의 30%인 2천25만원을 선수금으로 납부하고 36개월간 매월 49만9천587원을 납입하면 된다. 3년 계약 종료시점에서 재리스 신청 또는 상환 유예금을 완불한 뒤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또 차량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보증서비스와 별도로 5년(10만km 이내)간 소모품 교환과 차량의 정기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혼다코리아는 4월 한 달간 '레전드' 구매고객에게 주유상품권 150만원과 등록세와 취득세를 지원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대우캐피탈, 신한카드 오토리스와 공동으로 '뉴 비틀', '뉴 비틀 카브리올레', '이오스'를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금융리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